

위협상황에서 걱정 많은 사람들의 대처 과정 특성*

채 은 옥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일차적 통제 양식과 이차적 통제 양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대학생 300명에게 얻어졌으며, 측정치에는 걱정증상질문지, 우울증상질문지, 강박 증상질문지와 위협 상황에서의 대처 과정 질문지가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걱정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적은 사람들에 비해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부적응적 일차 통제를 보이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부적응적 이차 통제를 보였다. 또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적은 사람들에 비해 결과의 치명성, 통제 욕구, 통제 의무를 높게 지각하고, 지각된 유능성은 낮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결과들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걱정, 통제 양식, 일차적 통제, 이차적 통제, 위협 대처

* 본 연구는 200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영호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
Fax : 032-345-5189 / E-mail : yhlee@catholic.ac.kr

걱정(worry)은 대부분의 사람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인지적 현상이고, 지나친 걱정을 핵심 증상으로 하는 범불안장애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신 병리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이러한 걱정의 보편성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걱정과 불안을 동일한 심리 과정을 반영하는 구성개념으로 이해해왔고, 걱정을 불안의 생리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과 구분되는 인지적 측면으로 인식하기도 했다(Barlow, 1988; Mathews, 1990). 그러나 최근에는 걱정과 불안이 서로 독립적이고 고유한 특징을 갖는다는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돕는 적응적 측면을 지닌 정상적 걱정과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지속시키는 병리적 걱정으로 구분하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Davey, 1993, 1994a).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병리적 걱정은 그 주제가 건강, 가족, 재정, 대인 관계, 업무 등을 비롯한 일상생활의 광범한 영역에 만연되고 (Craske, Rapee, Jackel, & Barlow, 1989), 흔히 구체적인 선행사건 없이 빈번하게 의식에 침투하며 적절히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되고 있다(Borkovec, 1994; Borkovec, Robinson, Pruzinsky, & DePree, 1983). 병리적 걱정은 주의 집중의 어려움과 과도한 불안을 비롯한 다양한 부수적 증상들을 수반하여 개인의 적응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avey, 1994a, 1994b).

Borkovec(1983)은 걱정을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며, 상대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사고와 심상의 연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걱정은 주로 언어적이고 개념적인 사고 활동이라고 하였다. Davey(1993, 1994a)는 걱정을 ‘미래에 일어날 외상적인 사상을 막고 외상적인 사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인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정상적

걱정이 개인의 성격특성과 상황 특성에 의해 방향을 받게 되면, 인지적 오류를 범하게 되고 이것이 병리적 걱정으로 발전, 지속된다고 제안한다. Borkovec은 걱정 과정이 결과가 불분명하지만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나 걱정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점에 주목하여 걱정의 인지적 회피 기능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은 걱정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고통스러운 정서적 주제로부터의 주의 분산을 하기 위해 걱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Borkovec, 1995). Dugas 등(1998)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 인지 회피의 형태인 사고 억제를 더 많이 사용함을 밝혀냈다. 즉, 위협을 회피하려는 정신적인 노력인 걱정은 언어적 사고의 형태로 정보를 처리하면서 정서적, 생리적 반응을 차폐하고 혐오적인 경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적적으로 강화되기 쉬우며,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키거나 통제하는 걱정의 특성은 부적적으로 강화되면서 행동을 통한 통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차단된 정서 처리를 통해 걱정은 오랫동안 불안을 유지시킬 것이다(Borkovec & Hu, 1990).

걱정이 언어적이고 개념적인 사고 활동이고 정신적 노력이라는 선행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걱정은 ‘시험에 떨어지면 어찌?’와 같은 식의 침투적 속성을 지닌 사고로서의 ‘걱정’과 여기서 유발된 정신적 활동으로서의 ‘걱정하기’로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함이 시사된다. 최근 권석만, 유성진 및 정지현(2001)은 걱정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협가 평가 과정’과 ‘위협에 대한 대처 과정’으로 걱정과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병배 역시 걱정 유형의 침투사고에 대해서

는 주로 걱정 행동이나 걱정하기가 나타남을 밝혀 위협에 대한 평가로서의 걱정과 대처방략으로서의 걱정 즉, 걱정하기로 구분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민병배, 2000).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 및 대처 과정 특성

범불안장애와 관련하여 많이 언급된 성격 차원은 일반적인 취약성 요인으로서의 ‘위협의 과대평가’이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Davey, Hampton, Farrell, & Davidson, 1992). 또한 최근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강박장애 뿐 아니라 범불안장애에서도 중요한 신념일 것이라고 제안되었다(Dugas, Gagnon, Ladouceru, & Freeston, 1998). 범불안장애 환자들이 보이는 우유부단함(Borkovec, 1994), 자극의 모호성이 증가하면 반응의 어려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Tallis, Eysenck, & Mathews, 1992), 반응을 위해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Tallis, Davey, & Capuzzo, 1994) 등은 불확실성 차원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범불안장애의 성격 차원과 관련하여 일관적인 결과는 대처능력의 지각과 관련된 차원에서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문제해결능력 자체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걱정과 관련됨을 시사하고 있다(Davey, 1994b; Davey, Jubb, & Cameron, 1996; Dugas et al., 1998).

권석만 등(2001)은 걱정과 관련된 주요한 인지평가차원을 상정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위협 사상에 보이는 인지왜곡경향성을 탐색하

였다. 연구 결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적은 사람들에 비해 위협가 평가 과정과 위협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오류를 보였다. 위협가 평가 과정에서는 부정적 사건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고(발생 가능성), 걱정하는 일이 초래할 결과가 더 치명적이며(결과 치명성), 걱정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더 부족하다고(대처능력) 지각하였다.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오류를 보였는데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적은 사람들에 비해 위협 사상에 대한 통제 의무를 더 높게 느끼면서도(통제 의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이 더 낮을 것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지각된 통제력). 이런 결과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 상황에 대한 위협가와 통제 의무를 높게 지각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대처 능력과 통제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현실적인 통제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 때문에 문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높게 경험하고 현실적인 문제해결노력 보다는 걱정에 집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상술한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나 대처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격적 취약성과 인지적인 왜곡 경향성으로 인하여 인지적 회피 기능을 지닌 ‘걱정하기’를 통해 위협 상황을 대처하고 통제하려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안은 지속되는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차적 통제와 이차적 통제

Rothbaum, Weisz 및 Snyder(1982)와 Heckhausen 과 Schultz(1995)는 통제의 위협과 상실에 대해

어떤 대처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일차적 통제, 통제의 포기, 이차적 통제 양식을 구분하였다. 일차적 통제는 통제의 위협을 느꼈을 때 통제를 재획득하고 재확립하려고 시도하는 반응 양식이다. 이는 개인의 욕구에 맞춰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반응 양식이다. 통제의 포기는 통제의 위협에 대해서 통제시도를 포기하고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는 양식이다. 그러나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욕구를 변화시키기보다는 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대안만을 받아들인다는 면에서 볼 때, 통제의 포기는 일차적 통제의 부정적인 변형으로 간주된다. 이차적 통제는 통제 상실의 위협에 대해서 환경에 맞춰 개인의 욕구를 변화시키려는 양식이다. 이는 환경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차적 통제에서도 통제를 포기하는 반응이 나타나지만, 통제의 포기 양식에서와는 달리 이러한 반응이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둘은 구분된다. 최근 통제 차원과 관련하여 강박적인 사람과 걱정 많은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민병배, 2000), 연구 결과 강박적인 사람과 걱정 많은 사람들 모두 통제욕구 차원과는 정적상관을 보였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긍정적 수용양식과는 부적상관을 보임이 밝혀졌다. 즉, 강박적인 사람과 걱정 많은 사람은 모두 자신과 환경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많으며,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걱정이 많은 사람은 강박적인 사람과는 달리 직접적인 통제를 행사하기보다는 무기력하게 통제를 포기하는 경향을 더 많이 보임이 밝혀졌다. 또한, 걱정이 많고 우울한 사람들은 문제해결에 대

한 자신감과 전반적인 통제감이 부족한데 비해, 강박 증상은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및 통제감과 큰 관련이 없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Shapiro와 Astin(1998)은 긍정적 주장 양식(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양식)과 긍정적 수용 양식(어떤 상황에서는 통제를 놓는 것이 통제감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상황을 받아들이며 대처하는 양식)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부정적 주장 양식(적극적인 통제를 과도하게 행사하는 대처양식)과 부정적 수용 양식(상황을 변화시키려는 통제를 행사하지 않고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고 체념적이고 운명론적으로 대처하는 양식)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들(Shapiro, 1994)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통제를 행사하지 않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적응적인 양식을 보임이 시사한다. 다시 말해, 걱정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는 강하나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결여와 통제감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응적인 대처 행동 및 실제적인 통제를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나친 걱정으로 문제 해결을 대신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상술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인 위협 상황을 제시하여 걱정이 많은 사람의 위협 대처 과정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고, 특히 통제 양식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적인 위협 상황을 통제 가능한 상황(대처할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상황(대처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나누어 걱정이 많은 사람에 비해 걱정이 적은 사람에 비해 통제 가능한 상황에

서 직접적인 통제를 행사하지 않고 무기력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며(부적응적인 일차통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제를 놓지 못하고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시도(부적응적인 이차통제)를 보이는 등 부적응적인 통제를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최근 민병배(2000)가 통제 양식과 관련한 연구를 하였으나, 통제 양식을 일반적인 특질 차원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인 위협 상황을 제시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이해를 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걱정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을 제시하여 대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고, 걱정 증상과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는 강박 증상과 우울 증상이 높은 사람들의 대처 과정 특성도 알아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유관성 차원이 새롭게 추가되어 걱정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대처할 수단의 존재 여부에 대한 오류를 보이지 않는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또한, 강박적인 사람 뿐 아니라 걱정 많은 사람도 ‘과도 통제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제 욕구’ 차원도 추가하였다. 가상적인 위협 상황에 제시된 인지 차원은 걱정하던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결과의 치명성(예: 정말 큰 병에 걸렸으면 난 견디기 힘들 것이다), 상황에 대처할 수단이 있다고 지각하는 지각된 유관성, 지각된 유능성, 통제 욕구, 통제 의무이다. 유성진(2000)의 연구에서는 ‘결과 치명성’을 ‘이러한 일은 나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평정치로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치명성을 ‘정말 큰 병에 걸렸으면 난 견디기 힘들 것이다’, ‘시험에 떨

어진다면 난 견디기 힘들 것이다’와 같은 식으로 실제로 위협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서적 고통이나 불편감이 클 것이라고 추정하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걱정하기’를 선택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서적인 고통에 매우 취약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좀 더 정서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대학생 300명에게서 얻어졌다. 이들 중 남자가 67명이었으며, 여자가 233명이었다.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23.86세(표준편차 3.58)였다.

도구

위협 상황에 대한 대처과정 질문지

위협 상황에 대한 대처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개발한 질문지로 8개의 가상적인 위협 상황과 각 상황에 대한 통제 양식과 인지적 편향을 평가하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8개의 가상적인 상황은 4개의 걱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인 관계(2개 상황), 자신감 부족(2개 상황), 학업 수행(3개 상황), 건강(1개 상황). 이는 Tallis, Eysenck 및 Mathews(1992)의 WDQ(Worry Domains Questionnaire)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학생들이 경험할만한 내용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WDQ에는 대인 관계, 자신감 부족, 목표 없는 미래, 직업 무능력, 재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는 범불안장애 환자들이 질병, 건강, 손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건강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통제 가능한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구분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처할 수단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로 하였고, 유관성의 개념과 동등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처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즉,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구성하였고, 통제 가능한 상황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처할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통제 가능한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지각된 유관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피험자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단이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다($t=17.11, p < .001$). 피험자는 제시된 8개의 상황에 대해서 각각 7개의 차원에서 9점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4점: 웬만큼 그렇다; 6점: 상당히 그렇다; 8점: 매우 그렇다)상에서 평정하게 된다. 5개의 평가 차원은 지각된 유관성(예: 이렇게 걱정스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결과의 치명성(예: 정말 큰 병에 걸렸으면 난 견디기 힘들 것이다), 통제 욕구(예: 이런 상황이 싫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통제 의무(예: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다), 지각된 유능성(예: 나는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갈 자신이 있다)이다. 나머지 2개의 평가차원은 통제 양식에 관한 것으로 통제 가능한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각기 다르게 제시하였다.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통제를 행사하는 적응적 일차 통제(예: 이런 상황에서 나는 우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다)와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부적응적인 일차 통제(예: 이런 상황에서 걱정은 되지만 병원에 가는 경우는 드물다)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환경에 대한 통제를 놓고 마음을 다스리는 적응적 이차 통제(예: 이런 상황에서 나는 마음을 잡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다)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제를 놓지 못하고 과도하게 통제를 하려는 부적응적인 이차 통제(예: 이런 상황에서 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른 일에 전념하기 어렵다)를 제시하였다. 피험자는 제시된 8개의 상황에 대해서 각각 7개의 차원에서 9점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4점: 웬만큼 그렇다; 6점: 상당히 그렇다; 8점: 매우 그렇다)상에서 평정하게 된다.

펜실베이니아 걱정증상 질문지(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

이 검사는 범불안장애의 주증상인 만성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걱정의 빈도 및 강도를 평가하는 자기 보고형 검사로서 Meyer, Miller, Metzger 및 Borkovec(1990)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검사는 16개 문항을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16~80점 사이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걱정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91,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5로 보고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원과 민병배(1998)에 의해 번안된 검사를 사용하였다.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이 검사는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Beck, Ward, Mendelson, Mock 및 Erbaugh(1961)에 의

해 개발된 21항목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이 검사는 현재 우울증상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중용(1991)에 의해 번안된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각 항목마다 우울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4문항 중 지난 1주 동안의 피검자의 경험에 적합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0~63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한국판 Beck 우울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8이며 반분신뢰도는 .91로 보고 되어 있다.

강박증상 척도(Maudsley Obsessional Compulsive Inventory: MOCI)

이 검사는 강박증상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Hodgson과 Rachman(1977)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검사는 30개의 문항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게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강박증상이 많음을 의미한다. 외국 연구에서는 확인(checking), 청결(washing), 지연(slowness), 의심(doubting)의 네 가지 하위척도가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는 조대경(1985)이 번안하여 표준화했으며, 1주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였다.

집단구분과 자료 분석

걱정 상 집단은 전체자료에서 걱정질문지(PSWQ) 점수가 상위 25%이상인 참가자로 선발하였고, 걱정 하 집단은 걱정질문지(PSWQ) 점수가 하위 25% 이하인 참가자로 선발하였다. 우울 상/하 집단(BDI점수), 강박 상/하 집단(MOCI점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선발하였다. 그 결과 걱정 상 집단은 78명(59점 이상), 걱

정 하 집단은 75명(40점 이하), 우울 상 집단은 87명(15점 이상), 우울 하 집단은 77명(5점 이하), 강박 상 집단은 90명(12점 이상), 강박 하 집단은 93명(6점 이하)이 선발되었다.

결 과

걱정 상/하 집단의 대처과정 비교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걱정 상 집단은 걱정 하 집단에 비해 결과의 치명성, $F(1, 151)=45.46, p < .001$, 통제 욕구, $F(1,151)=15.93, p < .001$, 부적응적 통제, $F(1,151)=15.52, p < .001$, 통제 의무, $F(1,150)=5.36, p < .01$,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지각된 유능성, $F(1,147)=21.42, p < .001$,과 적응적 통제, $F(1,151)=6.45, p < .01$, 차원에서는 걱정 하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지각된 유관성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걱정 상 집단은 걱정 하 집단에 비해 부적응적 통제, $F(1,151)=71.94, p < .001$, 결과의 치명성, $F(1,151)=52.28, p < .001$, 통제 욕구, $F(1,150)=22.92, p < .001$, 통제 의무, $F(1,149)=4.60, p < .05$, 차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반면 지각된 유능성과, $F(1,149)=12.69, p < .001$, 적응적 통제 차원, $F(1,151)=40.92, p < .001$, 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지각된 유관성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통제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처 과정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x2 요인 반복 측정설계로 걱정 상/하 집단 및 상황 조건에 따른 인지평정점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독립 변인

표 1. 걱정 상/하 집단별, 각 상황조건의 평정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가차원	집단	걱정 상 집단		걱정 하 집단	
		통제 가능한 상황	통제 불가능한 상황	통제 가능한 상황	통제 불가능한 상황
결과의 치명성		25.53(4.58)**	22.06(5.17)	17.76(6.92)	14.72(7.25)
지각된 유관성		19.84(5.07)	14.06(5.83)	20.73(5.34)	14.30(6.00)
지각된 유능성		18.10(4.83)	15.97(6.14)	21.97(5.35)	19.55(6.20)
통제 욕구		23.85(5.26)	24.43(5.13)	20.01(6.60)	19.90(6.48)
통제 의무		22.18(4.82)	19.23(5.24)	20.04(6.47)	17.10(6.85)
적응적 통제		17.17(5.01)	12.46(5.48)	19.42(5.90)	18.22(5.65)
부적응적 통제		15.37(5.69)	20.83(5.51)	11.81(5.46)	13.01(5.89)

**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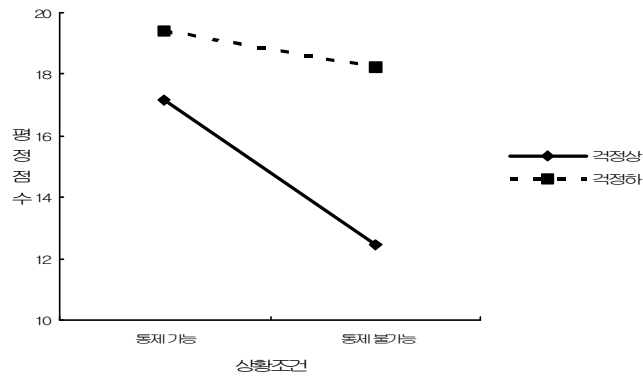


그림 1. 적응적 통제 차원에 대한 각 조건의 평정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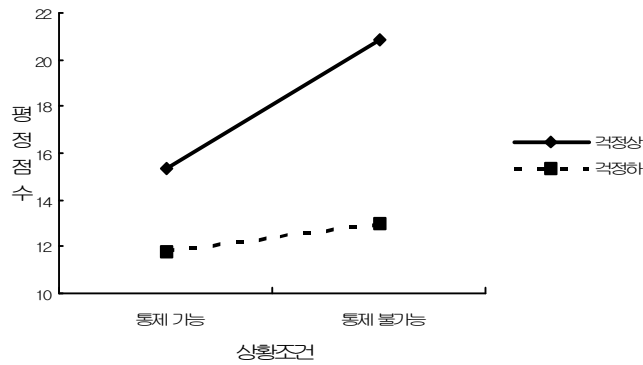


그림 2. 부적응적 통제 차원에 대한 각 조건의 평정 점수

은 걱정 상/하 조건과 상황의 통제 가능성 여부 조건이었고, 종속 변인은 각 인지평가차원의 평정 점수였다. 상호작용 효과는 적응적 통제 차원, $F(1,151)=10.14, p < .01$, 과 부적응적 통제 차원, $F(1,151)=12.97, p < .001$, 에서 관찰되었다. 적응적 통제 차원에서는 상황 조건(통제 가능성 여부), $F(1,151)=28.70, p < .001$, 및 걱정 상/하 조건, $F(1,151)=32.59, p < .001$, 모두에서 주효과도 나타났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통제 가능한 상황보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응적 통제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부적응적 통제 차원에서도 상황 조건(통제 가능성 여부), $F(1,151)=31.69, p < .001$, 및 걱정 상/하 조건, $F(1,151)=67.04, p < .001$, 모두에서 주효과도 나타났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통제 가능한 상황보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적응적 통제를 더 많이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울 상/하 집단의 대처과정 비교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우울 상 집단은 우울

하 집단에 비해 부적응적 통제, $F(1,161)=9.34, p < .01$, 통제 욕구, $F(1,162)=7.97, p < .01$, 결과의 치명성, $F(1,162)=6.02, p < .05$, 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지각된 유능성과, $F(1,158)=12.02, p < .001$, 적응적 통제, $F(1,162)=9.61, p < .01$, 지각된 유관성 차원, $F(1,162)=9.27, p < .01$, 에서는 우울 하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울 상 집단은 우울 하 집단에 비해 통제 욕구, $F(1,161)=9.48, p < .01$, 부적응적 통제, $F(1,162)=8.87, p < .01$, 결과의 치명성, $F(1,162)=8.29, p < .01$, 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지각된 유능성과, $F(1,160)=16.45, p < .001$, 적응적 통제, $F(1,162)=9.89, p < .01$, 에서는 우울 하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우울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통제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처 과정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2 요인 반복 측정 설계로 우울 상/하 집단 및 상황 조건에 따른 인지평정점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표 2. 우울 상/하 집단별, 각 상황조건의 평정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가차원	집단	우울 상 집단		우울 하 집단	
		통제 가능한 상황	통제 불가능한 상황	통제 가능한 상황	통제 불가능한 상황
결과의 치명성		22.25(5.70)**	20.02(5.53)	19.93(6.39)	17.12(7.29)
지각된 유관성		19.11(5.39)	13.97(6.08)	21.44(4.22)	15.36(5.95)
지각된 유능성		18.75(5.39)	16.01(6.22)	21.48(4.44)	19.65(5.06)
통제 욕구		23.58(6.17)	23.29(5.84)	20.98(5.54)	20.44(5.95)
통제 의무		21.02(5.86)	17.90(5.53)	21.74(4.74)	18.50(6.01)
적응적 통제		17.39(5.22)	14.54(6.01)	19.93(5.26)	17.31(5.15)
부적응적 통제		14.66(5.24)	18.02(6.31)	12.14(5.26)	15.02(6.55)

**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강박 상/하 집단의 대처과정 비교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강박 상/ 하 집단의 인지 평정 및 통제 양식을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결과의 치명성 차원과 지각된 유능성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강박 상 집단은 강박 하 집단에 비해 결과의 치명성 차원, $F(1,181)=10.78, p < .001$ 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지각된 유능성 차원, $F(1,173)=4.89, P < .05$, 에서는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박 상 집단은 강박 하 집단에 비해 부적응적 통제, $F(1,181) = 18.48, p < .001$, 결과의 치명성, $F(1,181) = 16.11, p < .001$, 통제 의무, $F(1,178)=8.20, p < .01$, 지각된 유관성, $F(1,181)=4.48, p < .05$, 통제 욕구, $F(1,180)=3.78, p < .05$ 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반면 적응적 통제 차원, $F(1,181)=6.19, p < .01$, 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강박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통제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처 과정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2 요인 반복 측정

설계로 강박 상/하 집단 및 상황 조건에 따른 인지평정점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지각된 유관성 차원에서는 상황 조건(통제 가능성 여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는 강박 점수가 낮은 사람의 유관성 점수가 높았으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강박 점수가 높은 사람의 유관성 점수가 더 높았다, $F(1, 180)=8.36, P < .01$. 지각된 유능성 차원에서도 상황 조건(통제 가능성 여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강박 점수가 높은 사람은 강박 점수가 낮은 사람에 비해 통제 불가능한 상황보다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의 지각된 유능성을 더 낮게 평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F(1,173)=5.18, p < .05$. 통제 의무 차원에서는 상황 조건(통제 가능성 여부) 및 강박 상/하 조건에서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강박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보다는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통제 의무를 더 높게 평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F(1,176)=5.06, p < .05$. 적응적 통제 차원에서는 상황 조건(통제 가능성 여부)과 상호 작용

표 3. 강박 상/하 집단별, 각 상황조건의 평정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가차원	집단	강박 상 집단		강박 하 집단	
		통제 가능한 상황	통제 불가능한 상황	통제 가능한 상황	통제 불가능한 상황
결과의 치명성		21.67(6.34)**	20.16(6.41)	18.55(4.49)	16.18(6.98)
지각된 유관성		19.84(4.91)	15.00(5.15)	20.65(6.10)	13.40(5.00)
지각된 유능성		19.97(5.28)	17.28(6.05)	20.87(5.02)	17.45(5.78)
통제 욕구		22.20(6.17)	22.68(6.09)	21.23(6.21)	20.93(6.03)
통제 의무		21.75(4.99)	19.10(5.73)	20.54(6.00)	16.68(5.59)
적응적 통제		18.65(5.12)	14.22(5.94)	18.41(5.92)	16.32(5.46)
부적응적 통제		14.23(5.33)	18.42(6.78)	13.31(5.46)	14.33(6.07)

**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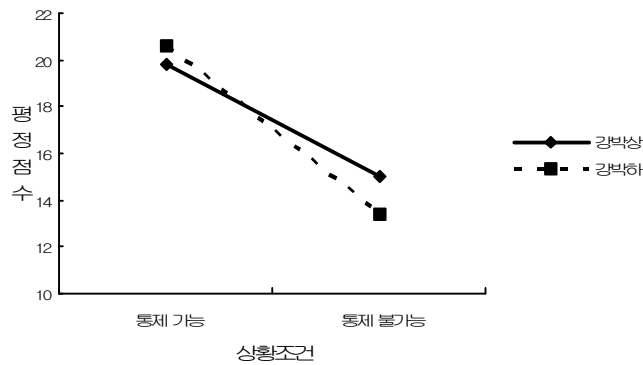


그림 3. 지각된 유관성 차원에 대한 각 조건의 평점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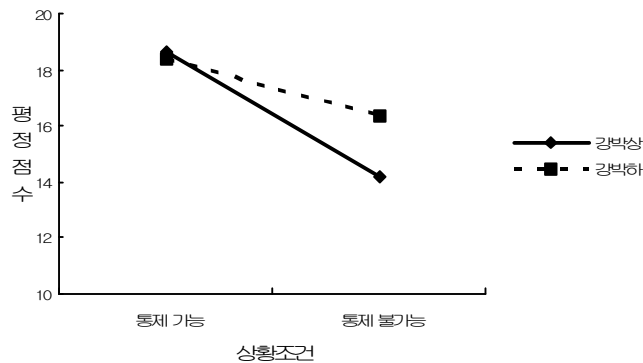


그림 4. 적응적 통제 차원에 대한 각 조건의 평점 점수

의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강박 점수가 높은 집단은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는 강박 점수가 낮은 집단에 비해 적응적 통제 점수가 더 높은 반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강박 점수가 낮은 집단에 비해 적응적 통제 점수가 더 낮았다, $F(1,180)=6.83, p<.05$. 부적응적 통제 차원에서는 상황 조건(통제 가능성 여부)과 강박 상/하 조건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강박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통제 가능한 상황보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적응적 통제를 더 높게 평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F(1,180)=10.82, p<.001$. 이러한 결과는

강박적인 사람이 과도한 일차적 통제 양식을 사용하나 이차적 통제 양식이 부족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2000, 민병배), 문제 상황에 접근적이기는 하나 과도한 통제 경향과 확실성 및 불확실함에 대한 인내력 부족으로 인해 부적응적인 대처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연구 결과, 걱정 수준이 높은 집단은 걱정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통제 가능한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과의 치명성’, ‘통제 욕구’, ‘통제 의무’, ‘부적응적 통제’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지각된 유능성’과 ‘적응적 통제’ 점수는 유의미하게 낮아 본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위협이 발생했을 시 정서적 고통이나 불편감이 클 것이라는 ‘결과의 치명성’과 ‘상황을 헤쳐 나갈 자신이 있다’는 ‘지각된 유능성’이 낮다는 것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위협 상황에 당면했을 시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대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및 통제감이 낮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통제 욕구와 통제 의무도 걱정집단과 비걱정 집단을 의미 있게 구별해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어, 걱정이 많은 사람은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와 상황을 통제해야 할 것 같은 내적 압박감을 더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고, 이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 불확실한 것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같은 성격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통제 양식에서도 걱정수준이 높은 집단이 걱정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적응적 통제의 점수는 낮았고, 부적응적 통제 점수는 높았다. 이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통제를 행사하기보다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현실과 한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 통제 가능한 상황 보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응적 통제를 행사하지 못하고 부적응적 통제를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수용하기 어려워함이 시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불확실함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강박장애 뿐만 아니라 범불안장애와도 관련이 높은 변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걱정 많은 사람들이 통제 욕구 및 통제 의무가 높은 등 문제에 접근적인데 반해,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는 통제를 행사하지 못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대처 방식이 부적응적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걱정증상’이 직접적인 문제 해결행동의 회피(Davey, 1994a)일 가능성과 함께 ‘걱정하기’를 통해 통제를 대신하면서 나름대로 통제감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즉,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나 대처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격적 취약성과 인지적인 왜곡 경향성으로 인하여 인지적 회피 기능을 지닌 ‘걱정하기’를 통해 위협 상황을 대처하고 통제하려고 하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불안은 지속되는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유관성의 지각에 있어서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적은 사람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 통제가 가능한 상황인지 불가능한 상황인지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걱정이 적은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며, 통제 가능성 판단 여부보다는 걱정의 특질이 병리적 걱정과 더 많은 관련이 있음이 시사된다. 오히려 유관성은 강박 상/하 집단과 우울 상/하 집단을 변별해주는 변인이었다. 우울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우울 점수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지각된 유관성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울한 사람들이 그

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처할 수단이 적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환경의 통제 및 환경에 대한 관여를 덜 함을 시사한다. 이와 반대로 강박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는 강박 점수가 낮은 사람에 비해 유관성 점수가 낮았으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강박 점수가 높은 사람의 유관성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박 점수가 높은 사람이 강박 점수가 낮은 사람에 비해 대처할 수단이 존재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통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오류를 보일 가능성이 시사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강박장애 환자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조차 과도한 통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였고(Salkovskis, 1998), Frost, Krause, McMahon, Peppe, Evans, McPhee 및 Holden(1993)은 강박장애에서 나타나는 마술적 사고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재확립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하였다. 이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마술적 사고 혹은 미신적 사고를 통해서 거짓 통제감을 유지함으로써, 통제의 실패를 애써 회피하려 함을 의미한다. 강박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통제 가능한 상황보다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많은 인지 왜곡 경향성과 부적응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볼 때 강박증상에 있어서 통제욕구 및 통제감의 유지, 확실성의 추구하고 같은 변인이 매우 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제공하는 의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걱정 많은 사람들의 대처 과정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황을 통제 가능한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누었고, 일차 평가(결과의 치명성), 이차 평가(지

각된 유능성, 지각된 유관성), 통제 관련 변인 및 통제 양식(통제 욕구, 통제의무, 적응적 통제, 부적응적 통제)으로 세분화하여 좀 더 정교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 연구와 달리 지각된 유관성, 통제 욕구 변인이 추가되었으며, 통제 양식을 특질 차원이 아닌 위협 상황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통제 욕구와 통제 의무 변인이 걱정집단과 비걱정집단을 변별해주는 변인임이 확인되었으며, 걱정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적은 사람들에 비해 부적응적 통제를 행사한다는 것도 지지되었다. 그러나 유관성의 지각에서는 걱정이 적은 사람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강박 상/하 집단과 우울 상/하 집단을 구별해주는 변인이었다. 즉, 강박 성향이 높은 사람과 우울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상황의 유관성을 판단하는데 오류를 보일 가능성이 시사되며, 앞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하고 모호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각각의 증상들이 유관성의 지각에서 왜곡을 보이는지를 좀 더 정밀하게 탐색해보는 것이 각 증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하려고 한다. 첫째, 연구자가 제시한 위협 상황의 일반화 문제이다. 걱정 주제나 중요성에 있어서 개인마다 변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연구자가 제시한 가상적 위협 상황이 걱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통제 가능한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나누려는 시도 때문에 미래의 모호한 걱정 주제는 포함되지 못했다. 걱정 많은 사람들의 걱정 주제가 미래의 모호한 것이 많음을 고려해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모호하고 폭넓은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대학생 집단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범불안장애를 지닌 임상집단에서 본 연구의 결과들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걱정 많은 사람들의 대처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울집단과 강박 집단의 대처 과정 특성도 확인하였는데, 연구자가 제작한 질문지 자체의 주제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어서 강박 성향이 높은 사람이 경험하는 주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증상간의 정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한 증상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내용의 대처 질문지를 통하여 연구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 증상을 함께 비교해봄으로써 증상간의 유사성을 차이점을 탐색하고 각 증상의 고유한 특성을 변별할 수 있다면 증상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더 정밀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석만, 유성진, 정지현 (2001). 걱정이 많은 사람의 인지적 특성: 위협평가와 위협대처에서의 인지적 편향과 파국적 사고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467-487

민병배 (2000). 강박사고와 걱정: 침투사고 대처과정 및 관련 성격특성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청구논문.

민병배, 원호택 (1999a). 강박 증상과 걱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59-68.

민병배, 원호택 (2000). 강박 증상 및 걱정과 관련된 성격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

상. 19, 659-679.

유성진 (2000)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성격 및 인지적 특성: 위협에 대한 재평가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2.

조대경 (1985). 강박행동의 객관적 측정에 관한 일 연구: Maudsley 강박행동목록 표준화. 학생 연구, 20(1), 78-90.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Barlow, D. H. (1998). *Anxiety and its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Borkovec, T. D. (1994). The nature, functions, and origins of worry. In G. C. L. Davey & F. Tallis (Eds.), *Worrying: Perspectives on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29-50). Chichester, England: Wiley.

Borkovec, T. D., & Hu, S. (1990). The effect of worry on cardiovascular response to phobic image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8, 69-73.

Borkovec, T. D., Robinson, E., Pruzinsky, T., & DePree, J. A. (1983). Preliminary exploration of worry: Some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1, 9-16.

Borkovec, T. D., & Roemer, L. (1995). Perceived functions of worry amo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ubjects: Distraction from

- more emotionally distressing topics? *Journal of Behavior and Experimental Psychiatry*, 26, 25-30.
- Craske, M. G., Rapee, R. M., Jackel, L., & Barlow, D. H. (1989). Qualitative dimensions of worry in DSM-III-R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ubjects and nonanxious control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7, 397-402.
- Davey, G. C. L. (1993). A comparison of three cognitive appraisal strategies: The role of threat devaluation in problem-focussed cop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535-546.
- Davey, G. C. L. (1994a). Pathological worrying as exacerbated problem-solving. In G. C. L. Davey & F. Tallis (Eds.), *Worrying: Perspectives on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35-59).
- Davey, G. C. L. (1994b). Worrying,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social problem-solving confidenc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27-330.
- Davey, G. C. L., Hampton, J., Farrell, J., & Davidson, S. (1992). Some characteristics of worrying: Evidence for worrying and anxiety as separate construc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 133-147.
- Davey, G. C. L., Jubb, M., & Cameron, C. (1996). Catastrophic worrying as a function of changes in problem-solving confidenc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 333-344.
- Dugas, M. J., Freeston, M. H., & Ladouceur, R., Rheaume, J., Provencher, M., & Boisvert, J. M. (1998). Worry themes in primary GAD, secondary GAD, and other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253-261.
- Dugas, M. J., Gagnon, F., Ladouceur, R., & Freeston, M. H. (1998).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 preliminary test of a conceptual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215-226.
- Frost, R. O., Krause, M. S., McMahon, M. J., Peppe, J., Evans, M., Mcphee, A. E., & Holden, M. (1993). Compulsivity and superstitiousnes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 423-425
- Heckhausen, J., & Schulz, R. (1995). A life-span theory of control. *Psychological Review*, 102, 284-304.
- Mathews, A. (1990). Why do worry? The cognitive function of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8, 455-468.
- Rothbaum, F., Weisz, J. R., & Snyder, S. S. (1982). Chang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self: A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2, 5-37.
- Salkovskis, P. M. (1998). Psychological approaches to the understanding of obsessional problems. In R. P. Swinson, M. M. Antony, S. Rachman, & M. A. Richter (Eds.),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33-50). New York: Guilford Press.
- Shapiro, D H. (1994). *Manual for the Shapiro Control Inventory*. San Jose: Behaviordata, Inc
- Shapiro, D H, & Astin, J (1998) *Control 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 Tallis, F., Davey, G. C. L., & Capuzzo, N. (1994). The phenomenology of non-pathological

- worry: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G. C. L. Davey & F. Tallis (Eds.), *Worrying: Perspectives on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pp.61-89). Chichester, England: Wiley.
- Tallis, F., Eysenck, M., & Mathews, A, (1992). Elevated evidence requirements measurement of nonpathological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 161-168.

원고접수일 : 2007. 11. 04.

게재결정일 : 2008. 03. 05.

The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Worriers in Coping Threat

Eun Ok Chae

Young 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aim of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ping process characteristics of high-worriers with a focus on primary control mode and secondary control modes. The subjects were 300 college students, and the measures used were the PSWQ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the BDI (Beck Depressive Inventory), the MOCI (Maudsley Obsessional-Compulsive Inventory), and the Coping Process Questionnaire of Threatening Condi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high-worriers exhibited maladjusted primary control modes (passive and helpless coping in a controllable condition) and maladjusted secondary control modes (excessive need control in an uncontrollable condition). High-worriers also overestimated 'fatality of consequences', 'control need', and 'control duty' more than low-worriers. Furthermore, high-worriers underestimated their own 'coping ability' more than low-worriers. Our results were interpreted in terms of relevant previous studies, and we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worry, control mode, primary control mode, secondary control mode, coping threat